



# 김진우 빛나는 부활投

현재가 방향을 하면 지독한 악동이 된다. 김진우가 그랬다. 광주진흥고 시절 '천재 투수' 라는 극찬을 들으며 당시 신인으로는 역대 최고인 7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2002년 KIA에 입단한 그였다. 입단 첫 해 그는 신인 최다 탈삼진(172개)을 기록하며 12승을 올렸다. '천재 신인 투수' 로 흡입을 곳이었다. 김진우는 다음해인 2003년에도 11승을 올려

이후 2004년 7승, 2005년 6승, 부진한 성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인생은 전환점이 있는 법. 다행히 결혼 후 태어난 아들이 그의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지난 겨울 스프링캠프에서는 체중감량을 위해 생식을 챙겨먹었고 휴식시간에는 웨이트장에서 묵묵히 땀을 흘렸다. 체중도 105kg 안팎으로 떨어졌다.

김진우는 현재 올 시즌 선발 등판한 4차례의 경기에서 28.2이닝을 던져 5점만 내주는 '잔물 피칭'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4경기 연속 퀄리티 피칭(6이닝을 3자책점 이하로 막는 것)으로 막아 안정감도 되찾은 모습이다. 시즌 3승(방어율 1.75)으로 다승 부분 공동 선두다. 탈삼진도 20개나 된다. 천재가 드디어 꽃을 피운 것이다.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힘

## 시즌 3승(다승 선두)·탈삼진 20개...“아들 생각하면 힘이 솟아요”

데뷔 이후 2년 연속 두자릿수 승수를 기록하며 천재성을 발휘했다. 하지만 부상이 그를 흔들었다. 2002년 데뷔 시절 발목 염좌에 시달렸던 그는 2004년 2월 우측 대퇴골 부상으로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졌다. 김진우 자신도 “새벽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렸고 부상 중에도 술병과 함께 살았다”고 당시를 고백할 정도였다.

정규시즌에 들어서자 겨우내 흘린 땀들이 값진 결실로 돌아왔다. ‘미완의 대기’ 라는 명에스럽지 못한 꼬리표를 2년내내 달고 살았던 김진우. 프로 5년차인 그는 올 시즌 초반 3승을 쟁겼다. 아직까지 무패다. 김진우는 지난 26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SK전에서 선발등판해 최고 시속 152km의 빠른볼과 커브, 슬라이더를 적절히 섞어던져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이다. 김진우는 올 시즌 첫 승을 올렸을 때 “아들 세현이의 100일 선물” 이라고 말했고, 2승째는 “슬값으로 분위기를 산다” 며 여유로운 웃음을 띄웠다. KIA 서정환 감독은 “2승 뒤 선수들에게 커피를 건네는(김)진우에게 5승마다 한번씩만 하라고 했다” 면서 “올해 진우의 커피를 3잔만 더 맛봤으면 좋겠다” 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드래곤즈 “어린이 날 초등생 등 무료입장”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는 “5월5일 오후 3시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홈경기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무료 입장시킨다” 고 27일 밝혔다. 전남은 또 어린이 입장객에게 선착순으로 마우스패드와 인형, 풍선, 경기 일

정표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광양축구장 외곽에서는 전남 선수들이 참가하는 팬 사인회와 도전 슛 골인, 볼 컨트롤 왕, 얼굴 페인팅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 이승엽 슬럼프 장기화 불안...초조...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타격 슬럼프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슬럼프를 넘어서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견해와 타격에도 순환주기가 있는만큼 일시적인 부진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분명한 것은 2주전 주말부터 좌완 투수들의 릴레이 공략을 받으면서 이승엽의 타격 밸런스가 무너졌고 선수 본인도 안타가 나오지 않아 초조해 한다는 사실이다.

#### 타율 4할대에서 0.313까지 추락

이승엽의 현재 컨디션은 비단 좌완 투수 뿐 아니라 우완 투수가 나와도 효과적인 공략이 어려운 실정이다. 타격 리듬을 상실, 상체가 먼저 도는 바람에 헛방망이가로 돌기 일췌이고 밀어서 치는 타구보다 당겨서 버타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승엽은 21일 한신전에서 끝내기 역전 투런포를 쏘아올리기도 “안타를 쳐야 하는데, 계속 이러면 안되는 데”라며 불안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승엽의 시즌 타율은 4할대를 웃돌다 현재 0.313까지 떨어졌다. 무안타 행진이 지속된다면 이주 중 2할대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좌완 투수 상대 타율은 3할대에서 0.250까지 하락했다. 이승엽은 “아쿠르트는 볼배합에서 완전히 말려 공략을 할 수 없었다”며 전력 분석원의 도움을 받아 다음 대결 때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방문 경기를 마친 뒤 3게임차로 턱 밑까지 쫓아온 2위주니치 드래곤즈와 주말 3연전을 앞둔 이승엽이 다시 결정적인 순간 강한 해결사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 홈런왕 배리 본즈 통산 711호 홈런

악물 복음설에 휘말린 미국 프로 야구 현역 최고홈런왕 배리 본즈(42· 샌프란시스코)가 개인 통산 711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역대 이 부문 2위인 베이브 루스의 기록에 3개차로 바짝 다가섰다. 본즈는 27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벌어진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5-7로 패색이 짙던 9회말 대타로 등장해 극적인 동점 2점 홈런을 터뜨렸다. 전날 경기 솔로홈런에 이어 이를 연속 홈런포를 가동한 본즈는 이로써 루스(홈런 714개)의 기록에 3개차로 접근. 통산 홈런 2위 자리를 눈앞에 뒀다. 메이저리그 통산 홈런 선두는 755개의 대포를 때려낸 헝크 아론이다. 이날 선발에서 제외된 본즈는 9회말 2사 2루에서 스티브 핀리 대신 타석에서 메츠의 4번재 투수인 좌완 빌리 와그너와 마주했고, 볼카운트 1-2에서 가운데로 솔러 공을 힘껏 밀어 중앙 스탠드에 꽂히는 투런 홈런을 작렬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메츠에 결국 7-9로 무릎을 꿇었다.

### 이을용 잉글랜드행 추진



‘월드컵 4강전사’ 중 가장 먼저 해외진출에 성공했던 이을용(31·트라브존스포츠팀)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진출에 재도전을 내밀면서 성사 여부에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을용의 매니지먼트사인 오앤디 김양희 사장은 27일 “이을용의 이적 문제를 위해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올 시즌을 끝으로 트라브존스포츠팀과 계약이 끝나는 이을용은 그동안 구단측의 계약요청을 꾸준히 받아왔지만 지난 2003년부터 진행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약약을 미루고 있다. 김 사장은 “팀을 밝히기 어렵지만 몇개 구단과 상의하고 있다. 이을용의 포지션을 필요로 하는 구단을 상대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희망적인 분석을 내놨다.

- 28일(금)
- ▲메이저리그(보스턴-클리블랜드)<07:55·Xports>
  - ▲MBC 대 대학농구 결승(11:00·MBC ESPN)
  - ▲제25회 매경온라인 골프대회 2R(14:00·KBS2)
  - ▲휘닉스파크 클래식 골프 최종라운드(14:00·MBC)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8:00·SBS스포츠)
  - ▲프로야구<두산-SK>(18:00·KBS SKY SPORTS), <KIA-삼성>(18:30·MBC ESPN)
- 29일(토)
- ▲PGA투어 취리히 클래식 2R(05:00·SBS스포츠)

**패션모직 outlet 전매입구 시거리**

패션모직 본사 직송상품만 취급 **60~40% 할인**

복합층 1층 가격으로 2층 혜택

패션모직 outlet

**태양광주택보증금 70% 무상보조 실시**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무상 보조금 신청 접수, 선택순 마감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무상 보조금 신청 접수

태양광 정부 무상지원 사업부

1000 369-1800  
1000 242-7704